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성수의 '야심작' 보이그룹 투어스 22일 첫선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2005년 설립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플레디스)는 보이그룹 세븐틴을 비롯해 애프터스쿨·오렌지 카라멜·뉴이스트 등의 가수가 소속된 연예기획사다. SM엔터테인먼트 매니저 출신인 한성수 대표가 대형기획사 실무 경험을 살려 만들었다. 수년간에 걸쳐 축적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음악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미쳤다.

중앙대 무용과를 졸업하고 국립 무용단에서 활동했던 한 대표는 30살 때 SM엔터테인먼트 매니저로 입사해 초등학생이었던 가수 보아의 매니저로 업무를 시작했다.

지근거리에서 보아의 성장을 지켜본 그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콘텐츠 기획·콘셉트 프로듀싱 등 관련 지식을 쌓은 후 2005년부터 CJ 뮤직이 글로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비밀리에 트레이닝해 키운 걸그룹 에스블러시(S-blush)의 미국 진출을 도왔다.

2000년대 중반 SM을 퇴사해 2007년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에스블러시 멤버였던 손담비, 그리고 보아의 백업 댄서로 인연이 있던 가희와 함께 플레디스의 초석을 다졌다.



2007년 파워풀한 크럼핑 댄스를 앞세워 데뷔한 가수 손담비로 성공을 기대했지만 데뷔곡 'Cry Eye'가 흥행에 실패해 아쉬움을 안겼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2008년 두 번째 미니앨범을 발매해 수록곡 '미쳤어'가 대박을 치면서 큰 전환점을 맞았다. 특히 한 대표는 '미쳤어'의 트레이드 마크인 의자 안무를 직접 만든 것으로 유명한데 이 춤이 성공 요인이 됐다. 그 후 2009년 3월 발매한 정규 1집의 타이틀곡 '토요일 밤에'도 연달아 히트하며 '히트 제조기'로 유명세를 탔다.

손담비 성공 후 매출과 인지도 상승으로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2009년 가희를 필두로 졸업과 입학 형태로 팀을 유지시키는 5인조 걸그룹 애프터스쿨을 데뷔시켜 성공을 이어 갔다.

애프터스쿨은 트레이닝복을 메인 의상으로 활동하는 독특한 콘셉트와 퍼포먼스로 사랑받았다. 대표곡은 '아(AH)' '디바(DIVA)' '너 때문에' '뱅' 등이 있다.

2012년에는 첫 보이그룹 뉴이스트를 론칭했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후 절치부심 끝에 2015년 론칭한 두 번째 보이그룹 세븐틴이 최고의 루키로 성장하면서 플레디스는 제2의 도약을 맞았다.

플레디스는 2020년 5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하이브·HYBE)에 인수되며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손을 잡았다. 이후 하이브 산하 레이블로 편입돼 2021년 3월 하이브 용산 신사옥으로 이전했다. 한 대표는 플레디스 사내이사로 등재돼 플레디스 음반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다.

한편 플레디스가 세븐틴 이후 약 9년 만에 새 보이그룹 '투어스(TWS)'를 22일 선보인다. 회사는 지난달 투어스의 공식 SNS 개설과 함께 그룹명·팀 로고 모션 등을 공개하며 데뷔 임박을 알렸다. 2일에는 선공개 곡 '오 마이마이 : 7s'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예열을 시작했다.

4일에는 여섯 멤버들의 개성과 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개인 트레일러(TWS : FIRST TIME)가 오픈된다. 또 8·9·11일 세 차례에 걸쳐 오피셜 포토가 풀린다. 10일에는 데뷔 앨범의 트랙리스트가 베일을 벗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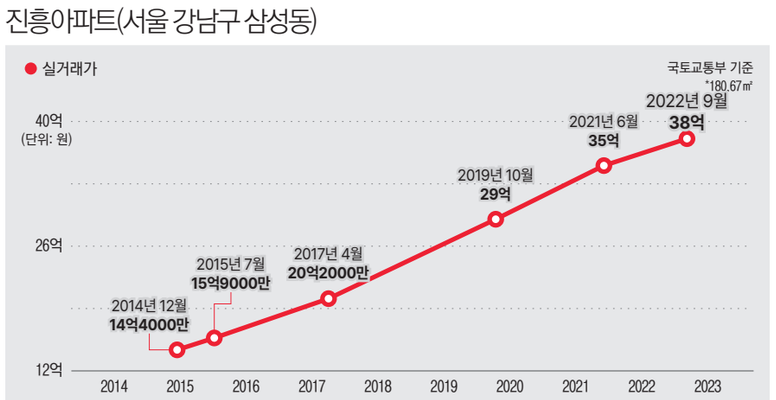
15일에는 데뷔 앨범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 메들리가 공개된다. 이들이 예고한대로 소년 시절의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환상적이고 감각적인 독자 장르 '보이후드 팝(Boyhood Pop)'을 이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후 17·18일 양일간 오피셜 티저를 방출하며 데뷔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팀 명은 'TWENTY FOUR SEVEN WITH US'의 줄임말로 하루를 뜻하는 숫자 24와 일주일을 뜻하는 숫자 7을 '모든 순간'으로 은유해 '언제나 TWS와 함께'라는 의미다. 새해 첫 출격하는 보이그룹 투어스가 2024년을 빛내는 아이돌 가수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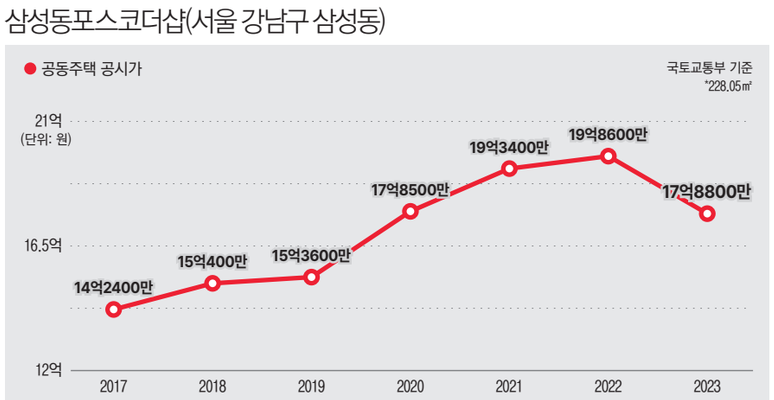
한편 한성수 대표의 부동산 재력이 화제다. 그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빌딩(사진) 하나를 2014년 6월 박소정 씨와 공동으로 30억6000만 원에 매입했다. 원래 플래디스 사옥으로 사용했으나 회사가 하이브에 인수된 후에는 광고대행사·카페 등이 입점해 있다.

대지면적 233.46㎡(약 70.62평)·연면적 583.1㎡(약 176.38평) 규모의 이 건물은 3.3㎡(1평)당 시세가 1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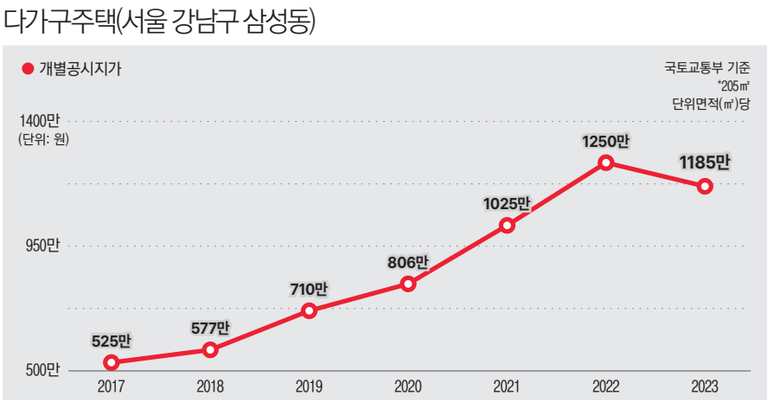
진흥아파트(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포스코더샵(서울 강남구 삼성동)



다가구주택(서울 강남구 삼성동)



권순석 전)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병원장



권순석 전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장은 가톨릭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가톨릭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 테네시대에서 알레르기 면역학 분야에 대한 연수를 마친 후 국내에 기관지천식 동물 쥐 모델을 도입해 기관지천식에 대한 기초 연구 및 새로운 치료법 연구의 초석을 다졌다. 2008년 8개 내과(감염내과·내분비내과·류마티스내과·소화기내과·순환기내과·신장내과·혈액종양내과·호흡기내과) 전문의가 협진하는 다학제 협진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 메디컬 협진센터를 개설했다. 2012년에는 한 명의 폐암 환자 치료를 위해 7개 과(호흡기내과·혈액종양내과·흉부외과·병리과·방사선종양학과·영상의학과·핵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하는 폐암전문센터를 개설해 폐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였다.



백창주 현)씨제스 스튜디오 대표

1977년 광주에서 태어난 백창주 씨제스 스튜디오 대표는 23살 때 신승훈·엄정화·코요테 등 인기 연예인이 소속된 대규모 매니지먼트사 매니저로 일을 시작했다. 이후 2000년 아이스타시네마 이사·2006년 여리인터내셔널 이사를 거쳐 2009년 씨제스 엔터테인먼트(현 씨제스 스튜디오)를 설립해 대표를 맡고 있다. 창립 멤버인 아이돌그룹 JYJ(김재중·박유천·김준수)를 시작으로 이정재·최민식·설경구·문소리 등 굵직한 배우들을 영입하면서 몸집을 키웠고 2012년에는 여행사 루크코리아를 인수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2014년 드라마 제작사 씨제스프로덕션과 공연예술 제작사 씨제스컬처를 설립해 엔터테인먼트계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다. 씨제스컬처는 첫 뮤지컬로 일본의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한 '데스노트'를 택했다. 이 작품은 JYJ의 김준수와 뮤지컬 배우 홍광호를 투 톱으로 앞세워 전 회차 매진 행렬을 이어 갔다.



이우철 전)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회장



이우철 전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회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뉴욕주립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제18회 행정고시 합격 후 충남 청양군청 수습행정관·해운항만청 경제협력과 사무관·재무부 사무관·대통령 경제수석비서실 서기관·재무부 법무관·재무부 장관 비서관 등을 거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제31대 생명보험협회장 등을 지냈다. 2008년 12월부터 3년간 생명보험협회 회장으로 일하며 생명보험사 상장·보험업법 개정 등 보험업계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일등공신으로 평가받는다. 2012년 2월부터 코람코자산신탁 부회장을 맡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속 높은 성과를 낸 점을 인정받아 2014년 3월 회장에 선임됐다. 취임사에서 그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경영을 통해 코람코의 핵심 가치인 열린 소통·미래 지향·사전 준비와 확인 점검·경쟁과 협력·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포스코이앤씨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완판… 고품격 아파트 선봬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일대에 들어서는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아파트가 어려운 시장 상황에도 완판 신화를 이뤄 냈다.

지난해 11월 포스코이앤씨가 분양한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총 1401가구는 정당계약 기간과 최근 진행된 예비당첨자 계약·무순위 및 선착순 계약을 통해 100% 계약 완료됐다.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영끌족의 성지로 불렸던 이른바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아파트 값이 급락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포레나노원' 전용 84㎡는 2022년 4월 13억1000만 원에 거래됐다가 2023년 6월에는 같은 평형이 12억 원에 팔리며 1억 원 이상 떨어졌고 강북구 '삼성래미안트리베라2단지' 전용 84㎡도 2022년 4월 11억8000만 원에서 올해 5월 9억 원으로 2억8000만 원이나 떨어졌다. 이러한 영향이 의정부·남양주·양주·포천 등 경기 동북부로 이어져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다.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조감도. 포스코이앤씨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는 입지·브랜드·미래가치를 갖춘 단지로 수도권 동북부에서 볼 수 없었던 단기간 완판을 이뤄 냈다. 이에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가 의정부를 넘어 수도권 동북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분양소장은 "어려운 부동산시장 상황에도 GTX 노선 개발호재와 동북권 실수요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한 단계 높은 '더샵' 브랜드의 차별화된 상품성 등을 갖춰 계약이 원활하게 이뤄진 것 같다"며 "의정부를 넘어 수도권 동북부를 대표하는 대장주로 우뚝 선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고품격 아파트로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선정

전국

국토교통부는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 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해 지역이 첨단산업 거점으로 거듭나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용인은 예타 면제)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를 거치던 농지 전용·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신속 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하여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용인·광주 산단이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지정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인력양성 지원 및 세액공제 등 혜택 제공의 기회를 마련했으며 용인 산단의 경우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